논어 7편 술이 32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文，莫吾猶人也；躬行君子，則吾未之有得！」

독음 · 자왈 문 막오유인야 궁행군자 즉오미지유득

쉬운 풀이(요약) · 글과 학문에서는 남만큼 할 수 있어도 군자의 삶을 몸소 행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文 무늬 문 문 / 莫 없을 막 막

吾 자기 오 오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人 사람 인 / 也 어조사 야

躬 몸 궁 궁 / 行 다닐 행 행 / 君 임금 군 / 則 곧 즉

未 아닐 미 미 / 之 갈 지 / 有 있을 유 / 得 얻을 득 득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